

定員管理과 學生選拔

呂 石 基
(高麗大 大學院長)

I. 머리말

한국의 각종 대학원이 量的으로 팽창·증대된 것은 과거 10년간 특히 1980년 이후의 두드러진 현상임은 <表 1>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表 1> 大學院數 및 大學院 學生數 現況

연 도	대 학 원 수		학 생 수	
	실 수	지 수	실 수	지 수
1965	37	1.00	3,842	1.00
1970	64	1.72	6,640	1.72
1975	82	2.22	13,870	3.61
1980	121	3.27	33,939	8.83
1981	151	4.08	44,731	11.64
1982	169	4.57	54,208	14.11
1983	170	4.59	60,282	15.69

<資料> 애드 영, 韓國大學年鑑, 1984.

<表 2> 大學院 學生의 增加 및 對學部學生 比率

區 分	1965	1970	1975	1980	1983
大學院 學生	3,593	6,122	11,311	33,939	60,282
學 部 學 生	105,643	146,414	208,986	402,979	777,907
比 率	1 : 29.3	1 : 23.9	1 : 18.5	1 : 11.8	1 : 12.8

<資料> 朴容憲, “大學院教育 改善을 위한 發展課題”(제17회 全國大學院長協會會 심포지움 제 2주제), 1984.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과거 18년 사이에 대학원 수에 있어 4.59배, 학생수에 있어 15.69배의 양적 성장을 하였다. '65~'70년 사이에 자기 1.72배 증가한 데 비해 '70~'75년 사이에는 大學院數가 1.3배, 學生數는 근 2배로 늘었다. '75~'80년 사이에는 대학원 수가 1.5배 는 데 비해 학생수는 2.5배 가까이 늘었다. 이것을 다시 '80~'83년 사이의 3년간 增加率로 보면 대학원수가 1.4배 증가에 학생수는 1.8배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 학생의 증가를 학부 학생 수와 對比해서 본 아래 <表 2>에서도 대학원생의 급격한 상대적 증가세를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근년에 와서 대학원 학생수가 幾何級數的으로 늘어났다는 뜻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몇 가지 要因이 직접·간접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로는 고급인력 양성에 대한 범국가적 요청이 크게, 어쩌면 가장

端的으로 대학원 교육의 양적 팽창면에 나타났고, 둘째로는 대학교육의 일반적 개념이 학부교육 차원에서 점차 대학원 교육차원으로 확대되어 보다 包括的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셋째로는 여기 對處한 문교당국의 비록적인 대학원 定員增加 정책으로의 전환(특히 1979학년도 이후)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학원 지원자를 誘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예컨대 應募資格의 완화, 總定員制의 도입, 대학원생에 대한 군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兵役特惠, 장학금 受惠範圍의 확대 등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물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적어도 量的 擴大의 측면에서 보는 한, 우리 나라 대학원 교육이 跳躍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며, 이제 그것이 어떻게 定着되어 나갈 것인가가 현실적 과제로 등장되었음을 뜻한다. 定員管理도 바로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II. 定員管理

먼저 一般大學院을 중심으로 몇 가지 통계를 제시해 보자면 아래의 <表 3>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대학원이 설치된 학교수 68개는 전국의 종합대학 및 4년제 단과대학을 합친 수(99개)의 약 9할에 해당된다. 아직도 완성 도중에 있거나 대학원 설치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대학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 비율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大學院 일반화의 한 斷面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인가정원수 대

비 定員充員率은 석사과정이 96%, 박사과정이 82%로서 상당한 高比率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석사과정의 경우 學部와는 여러 가지 다른 定員管理의 기술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율이라면 거의 인가정원을 다 채우고 있는 實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년에 볼 수 있는 지원자수의 激增現象에 비추어 볼 때 법정정원의 폭은 오히려 狹窄한 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박사과정 재적자가 82% 선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대학원 上位學位課程의 성격 質的 內實을 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수자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물론 이 말은 우리 나라가 앞으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 수급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참고로 한 조사자료를 소개하자면 <表 4>와 같은 대학교수요원의 長期需給展望에 대한 예측이 있다.

물론 이러한 장기에측이 여러 가지 불확실한 變數要因으로 해서 빗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대비해야 할 대학원의 人力養成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1983년도 현재 전체 교원수는 專門대가 6,910명, 일반 대학이 22,798명으로 집계되어 있다(문교통계연보, 1983).

대학원 교육이 담당해야 할 고급인력 양성의 대상은 물론 대학교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서 앞으로 격증이 예상되는 科學技術 분야의 연구자 수요로서 '80년대에 들어와 기업·연구기관을 포함한 각 분야의 고급인력 수요를 어떻게 국내에서 충당하

<表 3> 一般大學院 概況(1983년)

구 분	총 계		국 · 공 립		사 립	
	석 사	박 사	석 사	박 사	석 사	박 사
학 교 수	68		14		54	
학 과 수	1,314	831	399	275	915	556
인 가 정 원 수	28,707	10,337	9,818	4,104	18,889	6,233
제 적 학 생 수	26,990	8,440	9,258	3,013	17,732	5,427
(제 학자)	24,382	7,670	8,128	2,665	16,254	5,005
(휴학자)	2,608	770	1,130	348	1,478	422

<資料>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3.

〈表 4〉 專門大學과 4年制 大學의 教授委員 配給 展望

區 分	年度	學生數	教授 : 學生比	教授數
專 門 大	1978	113,603	1 : 25	4,293
	1981	236,372	1 : 25	9,455
	1986	305,372	1 : 22	13,881
	1991	345,772	1 : 18	19,210
4年制 大學	1978	277,783	1 : 24	11,475
	1981	446,818	1 : 25	17,873
	1986	695,356	1 : 20	34,768
	1991	797,956	1 : 15	53,197

〈資料〉 “教育發展의 展望과 課題 1978~91”, 韓國教育開發院, 1978(第13回 全國大學院 심포지움 報告書(1980)에서 再引用).

〈表 5〉 學系別 一般大學院 在學生數(1983년)

구 분	사			박 사		
	학생수	학과수	평균 학생수	학생수	학과수	평균 학생수
어 문	2,938	157	19	1,076	90	12
예 술	1,699	86	20	4	2	2
인 문	1,659	104	16	452	63	7
사 회	5,543	261	21	1,335	200	7
체 육	552	33	17	36	4	9
이 학	3,388	181	19	1,109	122	9
공 학	5,504	253	22	1,390	178	8
의 약	3,386	62	55	2,165	42	52
농 립	1,432	114	13	511	90	6
수산·해양	215	15	14	63	9	7
사 범	1,304	48	27	299	31	10

〈資料〉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3.

느냐가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廣義의 人文社會 분야에 비해 자연과학 계열의 상대적 정원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보며, 앞으로 大學院 정원 관리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83년도 현재로서 계열별 대학원 재학생수는 위의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인문·사회계 : 자연계의 비율은 약 46 : 54로서 후자가 약간 우세하나, 앞으로 이 비율은 자연계쪽에 더욱 기울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당연한 趨勢라고 하겠다. 그리고 학과별 평균 수강자의 수는 비교적 고른 平均值를 나타내고 있으나, 醫藥學系의 의학과와 의 경우는 학과 개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의학계 학위

가 특수한 것이 되어 여기서는 論外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는 師範系 평균 수강자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계수치로 나타난 우리나라 대학원의 定員管理는 대체로 量的인 면을 나타내 줄 뿐, 質的인 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림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양적 증대가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副應하여,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느 만큼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못지 않게 대학원 교육의 內質이 따라야 할 터인데 現實情은 반드시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봐서 양의 증대가 不可避하게 대학원 교육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몇 가지 誘因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無事安逸主義로 대학원 강의를 이끌어가기에는 학생들의 勉學熱이 높아졌다는 점, 둘째 학생들 사이의 선의의 학문적 경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 셋째 강의 외의 과제물, 自主的 발표의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 넷째 논문지도 등 학생과 교수와의 접촉기회가 전보다 잦아졌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과다한 지도학생수의 증가, 시설 특히 자연계의 경우 실험실습 기구의 공급이 학생수의 증가에 크게 뒤지고 있다는 점(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私學의 경우) 등은 양만 증가시켰지 內質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음을 看過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定員管理와 관련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에 장학금제도(조교문제를 포함하여)의 문제가 있다. 대학원 진학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학비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우수한 人材가 학부교육을 마치고 社會一線에 나가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보아 왔다.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한 학부 학생을 대학원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많은 교수의 경우 흔히 학비조달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하여 권유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 경험이 있는 교수 가운데는 1급 학생은 빠지고 2급 짜리 학생이 대학원에 모인다는 自嘲 비슷한 심경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다(물론 실체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보고 있다).

따라서 더 나은 학생을 더 많이 대학원에 유치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학문에 전념토록 할 수 있는 장치는 그테도 장학금제도의 확충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에 부속된 일부에 지나지 않는 대학원에 대해 장학금 예산을 집중적으로 策定해 주거나 해 줄 수 있는 대학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개개의 대학 안에서 기본적인 인식의 刷新도 필요하거나와 大局的 안목에서 볼 때 고급인력 양성의 면에서 文教當局의 一大勇斷이 요망된다. 그럴 때 官學과 私學을 차별하는 따위의 시책도 물론 없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요망코자 하는 것은 어쩌면 앞으로 고급인력의 가장 큰 受惠者가 될 企業쪽에서 人材養成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일이다. 재래식 産學協同의 개념을 打破하고 좀더 직접적으로 기업이 대학원 교육에 기여하는 방법은 여러모로 검토·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장학금 급여제도 말고도, 예컨대 실험기계의 증여·대여, 시설 공여, 연구비 책정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아롱든 視野를 확대하여 정부나 기업(또는 거기 부수된 연구기관)이 고급인력 양성의 主源인 대학원 학생(또는 교수)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두뇌 양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Ⅲ. 學生選拔

우리 나라의 大學院制度의 歷史가 日淺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학생선발이 아닌가 한다. 때로는 번잡하고 형식화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간략해져서 선발의 名分조차 찾기 어렵기 의미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선발제도 자체보다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경험의 축적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 私見이다.

대학원 입학 지원자가 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자랐던 시기에는 아무래도 資格試驗의 성격이 강했으나 지원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근년에 와서는 자격에 더하기 선발이라는 二重

的 고려가 작용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학원 교육을 받은 만한 사람이 들어 왔는가”라는 의문이 때로는 교수들에 의해 제기되는 때는 선발 방식 또는 그 실천에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이리라. 대학원 입학의 지원 자격에 관해서는 현행 규정상 상당히 개방적이다. 이 점은 학부 학생의 선발시험 제도와는 크게 대조적이거나, 이럴 경우의 융통성이 지원자의 修學能力을 어떻게 測定하느냐 하는 데 대한 제도적 장치와 합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

미국처럼 대학원 진학을 위한 適性檢査成績이 표준화되어 있거나,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학생의 品性이나 학문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가늠케 할 만큼 객관성을 지니고 있거나, 연구 계획서가 세밀하게 짜여지고 또 검토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면 아마도 지금 많은 대학원에서 하고 있는 식의 입학시험(필기시험 위주의)은 치루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나마 객관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 銓衡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點數화된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도 次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적지 않은 補完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한 예로서 서울대학교가 제시한 입학시험제도의 改善方案을 要點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은 학사과정 최종 4학기(3,4학년)의 평균 평점 B-이상인 자로서 2명 이상의 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並課하되 필기시험은 전공과 외국어(科에 따라서는 영어를 포함한 2종), 전공시험은 전공분야 전반에 걸친 기초지식을 알아보는 객관식(필수)과 전공 안의 小分野를 당라하여 선택케 하는 주관식(선택)으로 구분출제한다. 구술시험은 전공 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의 심도를 시험하는 데 주목적을 둔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먼저 필기시험에 의해 정원을 一定數 초과하는 一次 합격자를 선발하되 외국어 시험은 자격고사(100점 만점에서 40점 이상)적 성격에 국한시키고 전공 필기시험 결과만을 선발 목적에 충당한다. 약 1.5배 정

도로 선발한 일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구술 시험을 치루는데 구술결과와 추천서 등을 참작하여 A, B, C, D로 4등급 체계를 한다. 이때 원칙적으로 필기시험 성적은 무시한다. 그리고 구술시험 위원은 3명의 교수를 위촉하고 각자가 한 채점의 합산 平均値를 낸다. 구술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한 1인당 30분. 정원을 반드시 채우지 않아도 좋다(朴容憲, “大學院 教育改善을 위한 發展課題”, 제17회 全國大學院長協議會 심포지움 제 2주제, 1983).

박사과정의 경우도 이와 거의 비슷하기에 생략하나, 아몽든 현행의 대학원 학생선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중리가 여기에 엿보인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특히 이 가운데서 외국어시험을 자격시험으로 그치게 하고, 面接考査에 충분한 시간을 할당하며, 그것을 전공지식의 시험으로 보완하고, 評點化시키게 하자는 提案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대학원 시험은 학교마다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이런 방식이 전체에 通用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고, 또 이와 같은 方案을 실천에 옮겼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도 豫見되지 않는 바 아니다).

다음으로 학생선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에 학과별 정원배정 문제가 있다. 지금은 문교부가 정원 배정을 할 때 系列別 또는 學科別이 아닌 총정원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원으로서도 신축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총정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계열별, 학과별 人力需給에 관한 매우 신중한 배려가 따라야 할 뿐 아니라, 그때 그때 지원자의 개별적 능력 평가에 대한 객관적 尺度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계열간 학과간의 均衡 있는 배정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로 남

는다.

이러한 配分管理 역시 각 대학마다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한 방법론의 제기는 큰 의미가 없다.

IV. 맺는 말

편집자의 요청은 이 項目에서 졸업 후의 就業問題까지 다뤄달라고 하였으나, 이미 주어진 紙面도 다 되었거니와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기는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다만 한두 가지 이 문제에 대한 私見을 적어 두자면 고급인력 수급에 대한 일반적 예측이 그리 빛나가지 않는 한, 다시 말하자면 우리 나라의 국가 발전이 현재와 같이 급템포로 진행되는 한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문제는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오히려 分野에 따라서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태도 豫見되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반대로 현재 보는 바와 같은 大學의 異常膨脹 현상이 진전되었을 때, 대학교원의 급격한 充員事態가 해결되고 어느 만큼 정상화되었을 때 특히 人文·社會科學 계열 졸업자의 과잉공급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와는 사정이 반드시 동일하다 할 수는 없지만 1970년 이후의 美國 大學의 경우가 좋은 他山之石의 구실을 할 수 있다(金夏泰, “大學院教育: 美國과 韓國,” 제16회 전국대학원장협의회 심포지움 제 1주제, 1983, 참조).

이런 모든 문제를 포함하여 한국의 대학원 교육이 하나의 전환기요 또한 跳躍期인 이때를 맞아 당면한 슬한 문제를 슬기롭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곧 發展을 뜻하는 바로 그런 時點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